

자동차 자율주행 특허 출원 10년새 4배 증가

자동차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주행 제어 및 전기차에 관한 출원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전통적인 기계장치와 부품에 관한 출원은 감소세다.

23일 특허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진 특허분류(CPC)를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특허출원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분야 출원은 2006년 1만1326건에서 지난해 1만2117건으로 7.0% 늘었다.

주요 기술분류별 출원 증가율을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행제어 기술은 2006년 178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무려 410%, 전기차 기술은 252건에서 647건으로 157% 급증해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폭발적인 출원 증가가 확인됐다.

반면 현가장치 기술은 393건에서 262건으로 33%, 조향장치 기술은 1247건에서 1066건으로 15%, 차량부품 기술은 1584건에서 1337건으로 16% 각각 줄어 전통적인

전기차는 157% 급증 ... 기계장치·부품 관련 출원은 감소세

특허청, 2006~2015년 분석 결과 자동차 분야 출원 7% 늘어

기계요소 기술 출원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엔진 관련 기술도 엔진제어와 엔진 배기 기술은 각각 43%와 5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엔진 유회과 엔진 시동, 엔진냉각 기술은 각각 51%, 33%, 18% 감소해 엔진 관련 기술 내에서도 엔진제어를 통한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정정 관련 기술의 출원 증가가 뚜렷했다.

자동차 분야 전체 출원 중 내국인은 8만 6182건(81.9%), 외국인은 1만8989건(18.1%)을 차지했으며, 국가별로는 유럽(8.3%), 일본(6.0%), 미국(3.0%), 중국(0.2%)의 순이었다.

유럽은 2006년 714건에서 지난해 1077건으로 51% 증가했고, 미국은 243건에서 467건으로 92%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662건에서 755건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유럽, 미국 수입차의 수요 증가와 부품공급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업체의 출원 전략의 결과로 해석된다.

출원인별로는 현대기아차가 2만3355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모비스(4788건, 4.6%), 한온시스템(2761건, 2.6%), 한라홀딩스(2622건, 2.5%), 주식회사 만도(1284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유준 특허청 자동차융합사업과장은 "자동차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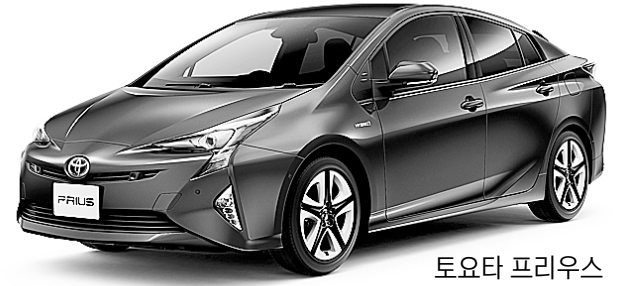
■ 자동차분야 특허출원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점유율)
현대기아자동차	2만3355건 (22.2%)
현대모비스	4788건 (4.6%)
한온시스템	2761건 (2.6%)
한라홀딩스	2622건 (2.5%)
만도	1284건 (1.2%)
현대중공업	1234건 (1.2%)

〈자료:특허청〉

기존 기계기술을 넘어 경계가 확대되고 있고, 그 중심에 자율주행, 친환경 및 연비향상 기술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토요타 프리우스

폭스바겐 연비조작 디젤 주춤

하이브리드 차량이 뜬다

최근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으로 디젤차량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 일본 차량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부상하고 있다. 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연료별 수입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7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도 3.5%에서 5.1%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디젤 차량 등록은 4만97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도 68.4%에서 67.4%로 소폭 줄었다.

디젤차 판매 하락세는 독일 브랜드의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 브랜드는 수입차 시장 전체가 4.3% 축소된 가운데서도 판매가 오히려 늘거나 축소폭이 작았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1~4월 등록된 폭스바겐 차량은 830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줄었다. 같은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도 전년 동기 대비 27.4% 감소했다. 토요타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지만 혼다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타는 지난 3월 올 뉴 라브4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 4세대 신모델을 국내에 출시했고 전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연간 150만대, 누적 1500만대 판매 목표를 세우는 등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다만 디젤차의 점유율이 여전히 7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이유로, 시장 판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차에 기회가 있겠지만 디젤차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신형 투싼.



기아차 중국형 스포티지.

현대기아차 中시장 점유율 9% 넘었다

지난달 현대 6%, 기아 3.1% ... 폭스바겐·GM 이어 3위

링동·투싼·스포티지 등 신차 효과 '특출'

지난달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점유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9%를 넘어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지난달 중국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6.0%, 기아차 3.1% 등 9.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시장점유율 8.2%보다 1% 포

인트 가장 높아진 수치다. 이로써 현대기아차는 폭스바겐(18.7%), GM(10.2%)에 이어 중국 시장에서 3위를 유지했으며 혼다(6.1%), 토요타(5.5%), 닛산(5.2%), 포드(3.8%), 푸조시트로엥(3.2%)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4월 전년동월(14만6195대)보다 0.1% 증가한 14만6378대를 팔았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 증가는 현대차가 주도했다. 현대차는 9만6222대를 판매해 작년 4월 9만1899대보다 6.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 판매는 신차 링동과 신형 투싼이 이끌었다. 신차인 링동은 지난달 1만4665대가 팔렸으며 이에 힘입어 링동을 포함한 아반떼(위애동·랑동·링동) 전체 판매는 전년동월보

다 12.7% 증가한 3만5658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신형 투싼도 올 4월 1만1150대 판매됐으며, 그 결과 신구형 투싼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105.6% 급증한 1만7295대에 달했다.

기아차는 지난 4월 판매가 5만156대로 전년 동월 5만6006대보다 10.4% 감소했다.

차량 중에서는 지난 3월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가 지난달 7813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월 판매량을 본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신형 아반떼, 신형 스포티지 등 올 1분기에 출시한 차들의 신차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중국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경쟁력 있는 제품과 안정된 품질을 앞세워 중국 내 판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대 모집

'하모니 원정대' '레드클로버' 내달 19일까지

기아자동차가 대학생 사회공헌 활동인 '하모니 원정대'와 '레드클로버' 참가자를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모니 원정대'는 6박7일간 카니발 이지무브 차량을 타고 국내 여행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대학생 2명과 비장애인 대학생 3명이 팀을 이뤄 7월 13~19일 전국 문화재와 국립공원, 휴양지 등에서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주차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조사한다. 총 10개 팀을 선정한다.

'레드클로버'는 대학생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 기획해 실행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테마는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이동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총 40명을 선정하며 각 팀은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장애인,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 다양한 이동약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프로그램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은 기아차 CSR 홈페이지(<http://csr.kia.com>)에서 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적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경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우형미술관 동구 금남로 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금강버티컬 북구 반룡동 42번길8 전대상대 뒷편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롤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블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블스크린외, 허니콤의 제작 및 시공 대표 박성정 ☎062)514-6118, 010-5627-6119	웰스정수기(렌탈)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건너편 교원빌딩3층 미네랄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연수기, 전기렌지(독일)렌탈 일시불상당 및 관리매니저모집 ☎010-5115-530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대우사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10-6(남동30) 카다로그, 포스터, 디자인, 판촉물 인쇄전문 대표 고광백 ☎062)232-0092	구수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평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교원 L&C 광주센터 북구 신안동 광주역 교원빌(구고려시멘트)3층 웰스정수기, 비데, 청정기, 전기렌지, 연수기 판매 및 렌탈상담전문 화장품, 효소홍삼 취급/매니저수시 모집 ☎010)2681-606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번지(법원뒷길) 하모(잡장어) 사바사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태양식육식당 북구신안동 전대차과 대학병원 건너편 다슬기 해장국·다슬기 오리 백숙 다슬기담백숙·다슬기 수제비 전문 대표 이정숙 ☎062)511-5292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다미울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인테리어 소품,의상 지수수선 한복, 미크수, 한우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지수 대표 고진순 ☎010-8261-5205	광주간호학원 동구 금남로 17가 19-1 천하빌딩 4층, 전원취업 알선 국비 간호 조무사 모집 일반주·야간 대표 윤상현 ☎062)222-5353	대풍쌀농산 북구 서방로 39번길9-2 (중흥동 평화선입구) 일반미·찰쌀·보리쌀·현미·서리태 팔·들깨·녹두·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원 ☎062)267-0101, 010-3609-717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호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한마음축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동구 광산동 56번지 2층~3층 수익형 빌딩, 프랜차이즈, 토지, 상가 매매 및 임대 대표 주승일 ☎062)227-2249, 010-3605-5571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6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해뜨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등어구이 정식, 목고기 등뼈찜 목은지 고등어말이, 고추장 양념구이 (야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